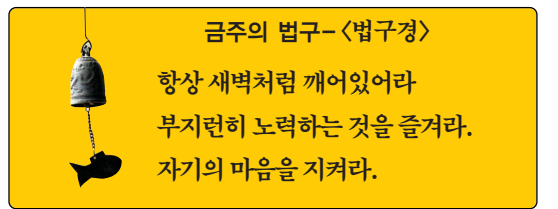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작은 인연도 소중한 여기는 마음
... 포교의 첫 걸음이자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6월 8일) · 주간

제 1054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한국을 매료시킨 ‘불교적 연수’

공공기관, 불교계 연수·템플스테이 협약 이어져

최근 불교계가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기능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가 불교계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불교계가 이를 포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과 보호소년 및 가족들에게 템플스테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보호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2013년 발표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정신건강부담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인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의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향후 보호소년, 이혼 및 가정불화를 겪는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도박관리센터 등도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정신 및 감정노동자, 도박중독자,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법무부도 보호관찰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역시 사업단과 협약을 맺었다.

중앙정부기관의 움직임과 함께 일선 사찰과 지자체의 협조관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의 경우에 7월 9일부터 충북교육청과 교직원들을 위한 ‘행복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성숙화 교육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법주사는 충북경찰청과도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캠프도 실시한다. 충주경찰서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조계사와 협약을 맺고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도 늘고 있다. 불교계 연수기관인 한국문화연수원의 김병주 총괄부장은 “금년 만해도 경찰청, 세종시 기재부, 공

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리더십 배양 등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연수신청과 함께 최근에는 참여 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수신청도 함께 대폭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이 같은 요구에 발맞추는 한편 이를 통한 포교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이웃소싱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수진 법주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불교를 드러내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정법원·교육청 등 사회 각 분야 기관과 협약

청소년·중독자 등 대상 다양

심성 순화·자기 절제에 도움 ‘포교 활용도’ 고민 필요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자체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중인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현재 일반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문화체험의 1기에 이어 마음다스림과 관련된 2기에 접어들었다”며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다스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사찰과 종단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불자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미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결국 불교는 고집멸도의 사성제에 근간한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불교계의 과제는 이들이 일회성 행사로 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일상에서 수행일지 작성과 수시 상담 등으로 이들이 힘들거나 지칠 때 다시 사찰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죽어서도 차별... 순직 인정하라” 인사혁신처가 7월 3일 세월호 희생자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을 사실상 반려함에 따라 순직인정대책위원회가 국민적 공의를 모아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세월호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는 7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순직인정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울러 조계종노동위 도철 스님, 박문진, 권승복 등 노동위원을 비롯해 故 김초원·이지혜 유가족 김성욱·이종락씨는 청사 앞에서 순직인정 촉구 1천배 기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글= 박아름 기자·사진=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위한 불교 연대 운동 ‘START’

민추본 등 8개 단체, 15일 연석회의 출범

8·15 합동범회 추진 통일열차 등 행사 마련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8개 불교계 단체가 모여 연대통일운동을 시작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등 8개 단체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다가오는 광복70주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불교계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분단이 100년을 향해가고 있는 때 평화통일을 위해 불교도가 힘을 합쳤다”며 “이 뜻이 후대에 전해져 통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한 달간 8·15

민족공동행사(민족통일대회) 및 조국통일위원 동시법회 참가뿐만 아니라 8·15남북합동범회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6월 30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합동범회를 정식 제안했으나 열악한 남북정세로 난세에 처했다”면서 “하지만 남북 불교계가 각자 힘을 보태 정세 파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8월 8일에는 광복70주년 평화통일열차를 기획했다. 서울역~도라산역을 왕복하는 평화통일열차와 함께 다양한 통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연석회의는 이즈음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5·24조치(천안함 피격 사건 후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7월 15일~8월 13일 평일 오후 12시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기도 정진’ △8월 1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배우 권해효가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대응활동 등 진행한다.

연석회의는 특별강연에 대해 “배우 권해효 씨는 고려하나 등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에서 10년 이상 홍보대사로 활약했음 뿐 아니라 수차례 남북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이해도가 높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생생한 통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추본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연석모임은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계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더프라이스 등 함께한다. 연석회의는 각 참여단체 대표자가 공동 대표로, 참여단체 실무책임자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준호 대불교회장)로 구성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원회 확대·개편 추진된다

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비·노동위’ 명칭 변경 등

소외계층으로 영역 확대 현장서 활동한 출가자에 3급 승가고시 자격 부여

사회·노동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대한 확대·개편이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5일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출가자의 사회 역할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사회 계층 변화에 따른 종단의 대사회활동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14조로 구성된 기존 법은 3장 18조로 확대 세분화된다. 특히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노동위원회는 확대된다. 명칭도 ‘자비와 노동위원회(가칭)’로 변경된다. 활동 영역도 기존 노동 분야에서 소외계층 지원, 이주민 문제, 사회 연대 등으

로 넓어진다.

자비와 노동위원회와 기존의 환경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배치되며 위원회의 예산도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토록 했다. 또한 자비와 노동위원회 등 현장 지원 활동 출가자 인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금을 신설해 운용토록 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승가를 위한 혜택도 마련된다. 4년 이상 종령이 규정한 활동시간을 초과한 스님에 대해서 ‘승가고시법’ 규정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14조로 구성된 기존 법은 3장 18조로 확대 세분화된다. 특히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노동위원회는 확대된다. 명칭도 ‘자비와 노동위원회(가칭)’로 변경된다. 활동 영역도 기존 노동 분야에서 소외계층 지원, 이주민 문제, 사회 연대 등으

한편 총무원에 오는 8월 3일까지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종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발심출가자 이렇게 인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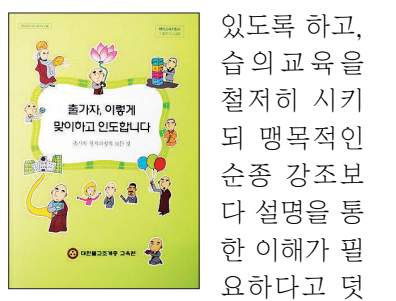
교육원, 주지 스님용 행자교육지침서 발간

어느날 출가를 결심해 사찰을 찾아온 발심자를 사찰대중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출가발심자를 어떻게 승가공동체 속으로 맞이하는지를 정리한 행자교육지침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사찰 주지 스님들을 위한 <출가자, 이렇게 맞이하고 인도합시다-출가와 행자과정의 모든 것>을 펴냈다.

이 지침서에는 출가자를 맞이하는 자세를 비롯해 일반출가와 소년, 청년출가, 단기출가 등 유형별 출가에 따른 대응방안 및 6개월간 행자교육과정 등이 그림과 도표로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 행자등록을 마친 이들 가운데 25%가 중도 포기를 하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발심자가 지속적으로 수행정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찰 주지 스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행자 유형별 상담을 통해 대중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습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맹목적인 순종 강조보다 설명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구본사와 교육원을 통한 행자 등록 절차, 종단에 행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외국인 출가할 때 필요한 서류, 소년 및 청년출가자에 주어지는 혜택, 단기출가 사찰 신청과 단기출가 등록 절차 등이 상세히 실려있다.

교육원은 “현대에 들어 다양해진 출가자의 유형에 따라 행자교육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행자 퇴사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새연재 |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표 36選 24면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뒤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안하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저음 | 308쪽 | 15,000원 | 민족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5명 선석석 모임
* 문의 민족사 02.732.2403-4